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PASTORAL CENTER

주임신부: 안기민 사도요한 510-562-3843

사목회장: 김경년 베드로 오일공-육구삼-공구이공

평협회장: 최대연 다니엘 오일공-이팔돌-이오팔공

선종회장: 채성일 토마스 오일공-오팔구-삼삼일일

2023년 우리공동체 사목방향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영적으로 성장하는 공동체

봉사하는 공동체

(녹) 연중 제13주일(교황 주일)

2023년 7월 2일 (제2039호)

사무실: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E-mail: standrewoak@gmail.com

TEL 510-553-9434

홈페이지: WWW.OAKCC.ORG

근무시간: 수(9am~5pm) 목(6pm~9pm) 토/일(9am~5pm)

| | | |
|-------|--------------------|----------------------|
| 주일 학교 | 주일 오전 10시 30분 교육관 | |
| 한국 학교 |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1시 | |
| 예비자교리 | 주일 오전 10시 교육관 106호 | |
| 신심단체 | 레지오마리아 | 주일 오전 9시 30분~10시 30분 |
| | 성령기도회 | 토요일 오전 9시 |
| | 향심기도회 | 월요일 저녁 8시 온라인 |
| 성시간 | 첫 목요일 저녁 미사 후 | |

| | | |
|-------|-----------|-------------------------------------|
| 미사 | 주일 미사 | 오전 8시 / 11시 |
| | 평일 미사 | 화·목 오후 7시 30분 수·금(대건회관)·토 오전 11시 |
| 성사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 | 병자성사 | 사무실/주임신부님 상시 신청 |
| | 혼배성사 | 사무실 신청 |
| 유아세례 | 사무실 상시 신청 | |
| 환자봉성체 | 매월 첫째 주 | |

제1독서 열왕기 하권 4,8-11.14-16ㄴ

화답송 시편 89(88),2-3.16-17.18-19(◎ 2ㄱ)

- ◎ 주님의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다.
- 주님의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다. 제 입은 당신의 진실을 대대로 전하오리다. 제가 아뢰나이다. 주님은 자애를 영원히 세우시고, 진실을 하늘에 굳히셨나이다.” ◎
- 행복하여라, 축제의 기쁨을 아는 백성! 주님, 그들은 당신 얼굴 그 빛 속을 걷나이다. 그들은 날마다 당신 이름으로 기뻐하고, 당신 정의로 힘차게 일어서나이다. ◎
- 정녕 당신은 그들 힘의 영광, 당신 호의로 저희 뿔을 들어 올리시나이다. 저희 방패는 주님의 것, 저희 임금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것이옵니다. ◎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6,3-4.8-11

복음환호송 1베드 2,9 참조

- ◎ 알렐루야.
- 너희는 선택된 겨레고 임금의 사제단이며 거룩한 민족이니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시어 당신의 놀라운 빛 속으로 이끌어 주신 주님의 위업을 선포하여라.
- ◎ 알렐루야.

복음 마태오 10,37-42

영성체송 시편 103(102),1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 | | | | | | | |
|----------|----------------|------------------|----------|-------------|----------|-----------|----------|
| [성가] | 8시 | 입당 19 | 봉헌 211 | 성제 특송 | 파견 28 | | |
| | 11시 | 입당 55 | 봉헌 511 | 성제 168, 187 | 파견 6 | | |
| 연중 제13주일 | 7월 2일(일) | | 7월 4일(화) | 7월 5일(수) | 7월 6일(목) | 7월 7일(금) | 7월 8일(토) |
| | 8시미사 | 교중미사 | | | | | |
| 미사해설 | 채성일 토마스 | 김미숙 말가리다 | 이은자 마트로나 | 이명련 파트리샤 | 이명련 파트리샤 | 이명련 파트리샤 | 사목회 |
| 독서 | 강신호 요한 이선미 에스터 | 권창모 미카엘 황선희 세실리아 | 이명국 바오로 | 윤춘주 세레나 | 이기자 요안나 | 이명란 아네스 | 사목회 |
| 제의방 | 이선미 에스터 | 장희숙 루시아 | 이은자 마트로나 | 윤춘주 세레나 | 장희숙 루시아 | 정인경 가브리엘라 | 허홍숙 세실리아 |

■ 7월 성시간

- 7월 13일(목) 저녁미사 후

■ 7월 봉성체

- 7월 12일(수) 실버구역, 7월 13일(목) 버클리구역/재활 센터, 7월 14일(금) 유니언구역

■ 토요일 미사전례 안내

- 7월 8일(토) 10시 미사 : 사목회

■ 7월 5일(수) 수요일 미사시간이 오전 10:30분에 있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7월 4일(화) 화요일 저녁미사부터 7월9일(일) 교중미사까지 춘천교구 김학배 안젤로 신부님이 함께 미사 집전해주십니다.

■ 본당행정사무직원 휴가 관계로 7/5(수), 6(목) 사무실 휴무합니다.

■ 성 김대건 신부님 영화 "탄생" 상영 예정

- 성 김대건 신부님 이야기를 그린 영화 "탄생"을 오늘 오후 1시경에 친교실에서 상영합니다.

■ 회의 및 모임

- 구역장 회의 : 7월 9일(일), 오후 12시 30분, 교육관 106호
- 재무평의회: 7월 9일(일), 오후 12시 30분, 교육관 107호
- 사목회의 : 7월 9일(일), 오후 1시 30분, 교육관 106호
- 오콜랜드 구역: 7/16(일) 오후 1시 교육관 106호
- 캐스트로벨리 구역:7/22(토) 오후5시 김현규 암브로시오 닥

■ 한국무용공연 관람 및 황금빛 인생 노래자랑

- 일시 : 7월 8일(토) 오전 10시 미사 후
(당일 오전 미사는 오전 10시에 봉헌됩니다.)
- 1부 : 한국무용공연
- 2부 : 노래자랑
신청 - 사목회 총무 유다윗 형제님(오일공-오파오-칠육삼팔) 7월 7일까지, 선착순 12명
- 3부 : 점심식사

■ 공동체 기도 지향

송성관 토마스, 한서연 수산나, 박영자 마리아, 신선아 헬레나, 심연자 데레사, 박영자 클라라, 조상희 마리아, 송정현 헬레나, 신정열 울리엠타, 정연중 비오, 최환준 분도, 최라파엘, 전옥분 크리스티나, 홍윤표 베드로, 황정숙 말찌나, 육승주 아오스딩, 권주선 다니엘, 천혜수아네스

■ 성경 통독

- 7월 집회서 (읽기분량 : 집회서 41,1 - 43,33)
- 성경필사노트를 성물방에서 교환해가세요.

■ 밥나눔 안내

- 메뉴 : 고등어조림, 떡만둣국, 순두부찌개, 콩국수, 팝콘치킨, 감자고로케, 와플, 과일, 컵라면, 커피/음료
- 문의 : 송성숙아네스자매님(오일공-삼칠오- 오일사칠)

■ 본당 수입/지출 현황

- 6월 본당 재정

- 23년 1월~6월 수입/지출 누적

* 자세한 내역은 친교실 게시판을 참조해주세요.

■ 2차 헌금

- 7/2일 교황 주일(Holy Father) 2차헌금

■ 안나 요아킴 라인댄싱 교실

-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 오후 1:00~3:00

■ 안나 요아킴 액세서리 만들기 교실

- 매월 3째주 토요일 오후 1시 교육관 106호

■ 제27차 북가주 성령대회 신청

- 8/12(토) 오전 8:30~오후 6:00 본당
- 참가자 접수 중(친교실)
- 각 가정 기도 및 사업체 기도 신청(마감일 7월 9일)

■ 서중부 여성 14차 꾸르실료 주말

- 일시 : 7월 20일 - 23일(3박 4일)
- 문의 : 이경란 베로니카 (오일공-육팔팔-공일오오)
- * 친교실에서 빨랑카를 받고 있습니다.

■ 본당 청소 (매주 토 오후 12시)

- 문의 : 이덕용 대건안드레아(오일공 칠칠삼 사삼팔삼)

■ 빈첸시오회 지역사회 이웃돕기

- 문의 : 이영길 안드레아(오일공-이구이-오파일오)

■ 오늘 헤어컷 봉사 없습니다.

☞ 감사합니다.

- 명랑운동회를 준비해주시고 진행해주신 평신도협의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지난 주 본당에서 봉사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 영명축일을 축하합니다.

- *토마스 사도(7/3): 이상용, 송성관, 송인환
- *대건 안드레아(7/5): 이덕용, 김명환

☞ 성당에 처음 오신 모든 분 환영합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루 카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르타와 마리아 이야기를 모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을 지나시다가 마르타라는 여자의 초대를 받아 그 집에 들어가시죠. 예수님을 초대한 마르타는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 갖가지 시중드는 일로 분주합니다.

그런데 마르타의 동생 마리아는 언니를 도와줄 생각이 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 말씀을 듣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그런 마리아가 못마땅했는지, 마르타는 예수님께 당신 동생을 좀 타일러 달라고 청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루카 10,42)

교회의 전통 안에서 많은 이들이 마르타와 마리아의 모습을 각각 그리스도인 삶의 두 측면인 활동과 관상을 대변하는 것으로 여겨 왔고, 마리아가 좋은 몫을 택했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비취서 활동보다는 관상이, 일보다는 기도가 더 중요하다는 해석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러한 해석에 근거해서, 우리 신앙인은 세상일에 관여하기보다는 기도생활과 같은 영적인 것에만 집중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잘못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활동과 관상은 구별되는 것일까요? 기도와 일을 두부 자르듯이 딱 나눠서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느님을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알아야 하고, 신앙이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하느님을 자기 삶의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자기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느님을 온전히 알아듣고 그분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겠습니까?

사랑하는 연인들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는 그만큼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도 커져 가죠. 함께 있든 떨어져 있든, 그 사람의 존재가 내가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그저 내 안에만 머물러 있을 수 있을까요?

서로 떨어져 있는데도 한 번도 연락을 안 하고, 일이 너무 바빠서 그 사람을 만나러 갈 생각도 하지 않고, 나중에 그 사람이 알게 되면 속상해 할 일을 그저 내가 좋다는 이유로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더라도, 그 말이 곧이곧대로 들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든 그 사랑을 표현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하느님을 참되게 알아듣고 그분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모습이 삶 안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해야 하니까 일부러 애를 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고는 못 배겨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칩니다"(2코린 5,14)라는 바오로 사도의 말씀 그대로죠. 의지가 아니라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마음의 고통이 있을 때 하느님을 찾고 그분께 위로와 평안함을 얻는 것에서만 신앙생활의 만족을 느끼고 있다면, 그런 분은 아직 하느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고 또 하느님을 자기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않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상과 활동은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서로 구별되는 고유한 특성은 있지만, 그것이 아주 별개의 것으로 분리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대로 이뤄진 관상이라면 그것이 삶으로 드러납니다. 만일 실제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기도라면, 그 기도가 제대로 잘 된 것인지 의심해봐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하느님의 뜻 안에서 이뤄지기 위해서는 참된 기도가 밑받침돼야 합니다.

참된 기도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 아니라면, 그 겉모습은 아무리 선한 것처럼 포장돼 있다 할지라도 실상은 나 자신을 위한 자기중심적인 행동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상과 활동 중 어느 것이 더 먼저인가를 따지면 관상이 더 먼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구체적인 삶 안에서 관상과 활동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도 마찬가지로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니 이웃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죠.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사랑하시는 다른 이들도 사랑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까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라'고 말씀드리는 까닭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난 모습, 좋은 모습만 있어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추하고 약한 모습, 한계와 죄성을 많이 지니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의 내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제대로 알아들었고 그래서 그분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신다면, 자연스럽게 내 자신이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명확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기도가 '은총으로 사는 자신의 실존과 성소에 대한 영적인 동의'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깨달음이 삶의 구체적인 행동들 안에서 드러나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미 주어져 있는 하느님의 은총을 더 쉽게 알아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지 않는다면, 아직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야고 1,22)

출처: [가톨릭신문, 2018년 5월 20일]

■ 미사참례인원 / 지난 주 정성

| | | | |
|---------|-----|------|------|
| 미 사 시 간 | 8시 | 11시 | 총 |
| 미사참례인원 | 55명 | 159명 | 214명 |

| 주일 헌금 | | 2차 헌금 | | 교무금 | Bishop | 감사 헌금 | 성소 | 선교 | 빈첸시오 |
|---|------|-------|------|-----|--------|-------|----|----|------|
| 8시 | 교중미사 | 8시 | 교중미사 | | | | | | |
| [교무금] 최대연(5-6), 김영자(6-8), 강신희(6), 유홍식(5-6), 이영길(5), 박정연(4-6), 김영민(5-6), 이상훈(7-8), 김원조(7-9), 김광석(7-12), 김정자(4-6), 강선진(5-6) | | | | | 김영민 | 양일규 | | | |

+ 미사지향

| 날 짜 | | 지 향 | 봉 헌 자 | 날 짜 | | 지 향 | 봉 헌 자 |
|---------|---|-------------|-----------|---------|---|---------------|-----------|
| 7/02(일) | 연 | 유춘성 데레사 | 가족 | 7/02(일) | 생 | 차아름 루시아 | 차영화 리디아 |
| | 연 | 전안드레아/정시몬 | 전마리나 /아네스 | | 생 | 주임 신부님 | 김정임 마리안나 |
| | 연 | 김지성 에드워드 | 김케넷가족 | | 생 | 주임 신부님 | 임유지 비비안나 |
| | 연 | 정대업 벤자민 | 정혜경 데레사 | | 생 | 신재극 스테파노 | 황정숙 말찌나 |
| | 연 | 주봉진 요셉 | 주정희 마리아 | | 생 | 브루사론조 발바라 | 전데레사 |
| | 연 | 조숙자 바울라 | 조진행 바실리오 | | 생 | 박진영 베드로 | 박덕희 마리아 |
| | 연 | 이원진 야고보 | 가족 | | 생 | 김미나 | 김정임 마리안나 |
| | 연 | 박인준 아브라함 | 박로사가족 | | 생 | 신선아 헬레나 | 김젬마 |
| | 연 | 김형준 시몬 | 가족 | | 생 | 조상희 마리아 | 김젬마 |
| | 연 | 민정희 클라라 | 민제노베파 | 7/04(화) | 연 | 최정자 젬마 | 이동재안토니오 |
| | 연 | 이호순 마리아 | 이에스터 | | 연 | 이원진 야고보 | 가족 |
| | 연 | 정미카엘 | 가족 | | 연 | John Blain | 채토마스 |
| | 연 | 김마르코 | 가족 | 7/05(수) | 연 | 윤천호 바오로 | 윤세레나 |
| | 연 | 최순일 요셉 | 강수산나 | | 연 | John Blain | 채토마스 |
| | 연 | 옥제병 요한 | 민제노베파 | 7/06(목) | 연 | 장대식 바오로 | 장루시아 |
| | 연 | 부홍신 마티아 | 가족 | | 연 | 김관숙 크리스티나 | 조프란치스코 |
| | 연 | 김옥희 아가다 | 조모나셀라 | | 연 | 김관숙 크리스티나 | 유리디아 |
| | 연 | 김정탁 요셉 | 가족 | | 연 | John Blain | 채토마스 |
| | 연 | 김화순 안나 | 가족 | | 생 | 유윤미 리디아 | 전수산나 |
| | 연 | 김관숙 크리스티나 | 김엘리사벳 | | 생 | 전문자 수산나 | 유리디아 |
| | 연 | 김관숙 크리스티나 | 양수산나 | | 생 | 이정우 | 유리디아 |
| | 연 | 김재성 제이슨 | 김커네스가족 | | 생 | 정한나 | 유리디아 |
| | 연 | 박영실데레사 | 양수산나 | | 생 | 홍상미 세레나 | 염파트리샤 |
| | 연 | 신정옥 마리아 | 임유지 비비안나 | | | | |
| | 연 | 이건용 요셉 | 임유지 비비안나 | 7/08(토) | 연 | 주봉진 요셉 | 주정희 마리아 |
| | 연 | 채인국 다니엘 | 채성운 루카 | | 연 | 전안드레아/정야고보 | 전알렉산델/스텔라 |
| | 연 | 전베드로/전바오로 | 전유자 데레사 | | 연 | 이원진 야고보 | 가족 |
| | 연 | 정대준 베드로 | 전유자 데레사 | | 생 | 성령기도회 활성화 | 성령기도회 |
| | 연 | John Blain | 채토마스 | | 생 | 박호영 헬레나 | 송아네스 |
| | 연 | 한 찬 | 이베로니카 | | 생 | 밥나눔 봉사자들을 위하여 | 송아네스 |
| | 생 | 장민우 | 송아네스 | | 생 | 천다니엘/아네스 가정 | 송아네스 |
| | 생 | 백하영 테일러 | 김관숙크리스티나 | | | | |
| | 생 | 천다니엘/아네스 가정 | 전데레사 | | | | |
| | 생 | 신정열 올리에따 | 김젬마 | | | | |

| | | | | |
|---|---|---------------------------------|---|---------------------------------|
| 대 건 한 의 원 한의학박사 이 준 침·한약·계중조절·통증조절·체질감별 401 Roland Way #225 Oakland (510)444-1010 | 조미정 공인회계사 세금보고 및 회계감사 Business Consulting ☎ (925)803-0200 Fax (925)803-0204 | 광고 문의 성당 사무실 510-553-9434 | J & J Auto Service 자동차 정비와 바디수리 ☎(510)236-0550 강 요 한 | 광고 문의 성당 사무실 510-553-9434 |
|---|---|---------------------------------|---|---------------------------------|